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Market Insight
2026.1.13

박광남
kwangnam.park@miraeasset.com

스페이스 &

우주산업 25년 결산 및 26년 주목할 이벤트

- 25년 결산, 민간 혁신 및 G2 경쟁 심화로 산업 성장 재가속되는 'J커브' 진입 확인
- 26년 전망, SpaceX 상장과 스타십 비용 혁신에 따른 섹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기대
- D2C 및 달 탐사 본격화로 단순 통신을 넘어선 거대 인프라 시장(TAM)의 구조적 확장

25년 우주산업 결산: 양적 성장의 재가속과 SpaceX 독주의 명암

2025년 글로벌 우주산업은 민간 주도의 발사체 혁신과 G2(미·중) 패권 경쟁 심화, 그리고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의 가속화라는 구조적 모멘텀이 결합된 한 해였다. 이에 따라 산업 전반은 전년 대비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세를 시현했으며, 투자자들의 센티먼트 또한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비록 로켓 생산 및 발사대 인프라의 병목현상과 SpaceX의 독점력 강화라는 구조적 과제가 상존하고 있으나, 2025년은 산업의 성장 속도가 다시 가팔라지는 'J커브'의 초입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우주산업은 2019년 SpaceX Falcon 9의 본격적인 램프업 이후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오다, 2021년부터 4년 연속 성장률이 둔화되며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발사대 인프라의 물리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신속 재사용 프로세스'와 '발사대 턴어라운드 시간 단축'을 통한 운영 효율성 극대화로 2025년 로켓 발사 성장률은 강한 반등에 성공했으며, 위성 배치 속도 또한 가속화되었다. 여기에 Blue Origin의 New Glenn이 재사용 발사 기술을 확보하며 민간 경쟁 구도에 진입했고, 저궤도 통신·군사·데이터 센터·월면 경제 등 전방 산업의 수요가 다변화되며 G2 경쟁을 자극하고 있다.

2026년은 이러한 경쟁 심화가 인프라 구축 비용의 하락을 유도하고, 이는 우주 데이터 센터와 같은 신규 서비스의 BEP(손익분기점) 도달을 앞당기며 산업의 성장 기울기를 더욱 가파르게 만들 것으로 전망한다.

로켓 및 위성 발사 동향: 효율성 개선이 이끈 양적 팽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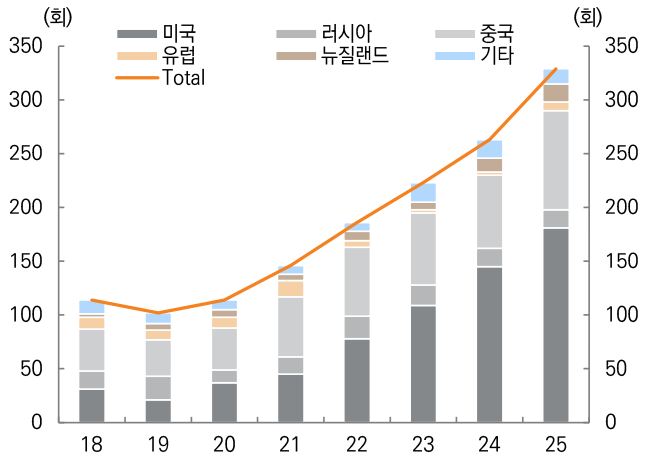
2025년 글로벌 로켓 발사 횟수는 329회를 기록하며 전년(263회) 대비 +25%의 고성장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 4년간 이어진 성장률 둔화 추세를 벗어나 성장세가 재가속 국면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2024년 대비 발사대 인프라의 유의미한 증설이 부재했음에도, 재사용 프로세스 최적화를 통한 가동률(Utilization) 상승이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81회로 시장을 압도했으며, 중국이 92회로 그 뒤를 이었다. 주목할 점은 뉴질랜드(Rocket Lab)의 약진인데, 2024년 13회에서 2025년 17회로 발사 횟수가 증가했다. 이는 Rocket Lab 경영진이 언급한 바와 같이 신속 대응 프로세스 개선에 따른 운영 레버리지 효과가 가시화된 결과로 판단된다. 세부적으로는 SpaceX가 Starship 5회 시험 발사를 포함해 총 170회를 발사, 글로벌 발사 점유율(M/S)의 50% 이상을 점유하며 미국 시장 성장을 주도했다.

중국 역시 2025년 92회의 발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35%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난 3년간 박스권에 머물던 발사 횟수가 민간 기업의 참여 확대와 저궤도 위성망 구축 수요로 인해 레벨업 된 것이다. 비록 연초 가이던스였던 100회 목표에는 미달했으나, 구조적인 발사 증가 추세는 유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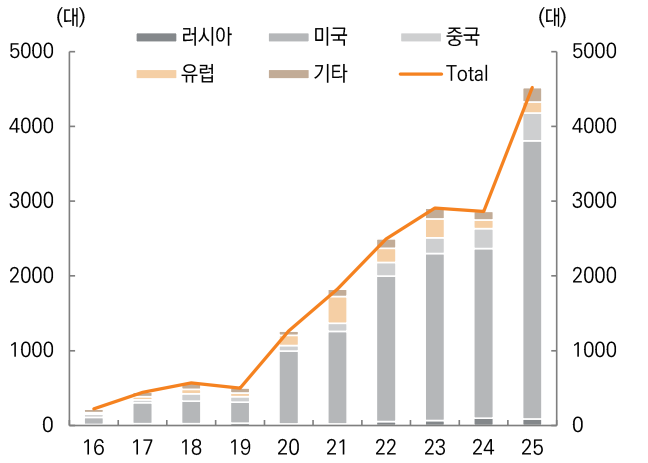
위성 시장의 성장세는 더욱 폭발적이다. 2025년 글로벌 위성 배치 수는 4,522대로 전년 대비 +58% 급증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719대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중국(371대), 유럽(147대)이 뒤를 이었다. 중국이 로켓 발사 횟수에서는 빠르게 추격하고 있으나, 위성 배치 수에서는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한다. 이는 중국 주력 발사체(Long March 6A, 8A 등)의 LEO 페이로드 용량이 5~8톤 수준으로, Falcon 9 대비 1/3 수준에 불과한 '체급 차이'에 기인한다. 결국 중국이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발사 빈도 증가뿐만 아니라, 중대형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통한 페이로드 용량 확대가 필수적이다.

그림 1. 미국의 독주가 이어지는 글로벌 로켓 발사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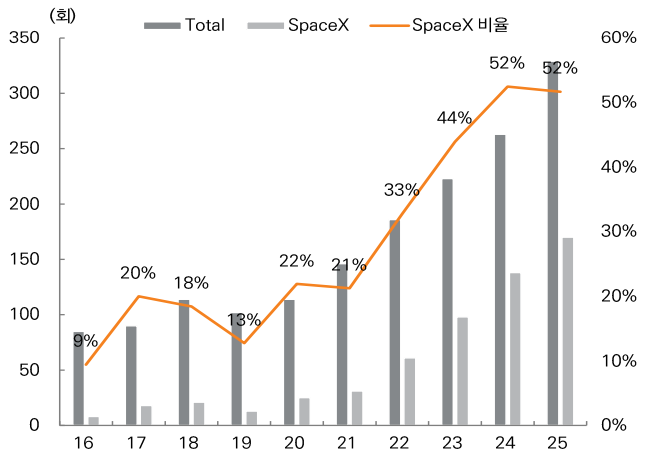
자료: Jonathan's Space Repor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전년대비 58% 이상 급증한 글로벌 위성 페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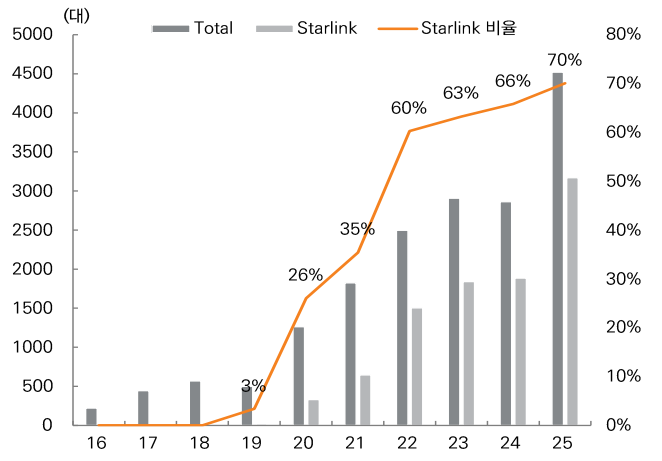
자료: Jonathan's Space Repor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글로벌 발사 점유율 50%를 넘어선 SpaceX



자료: Jonathan's Space Repor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3,169대의 위성을 배치하며 역대급 한 해를 보낸Spac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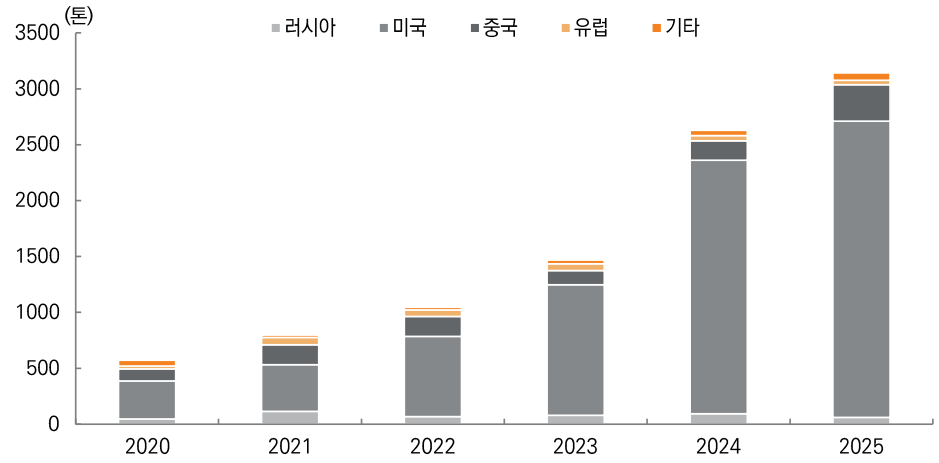
자료: Jonathan's Space Repor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심화되는 SpaceX 독주와 시장 왜곡 우려

2025년은 양적 성장의 쾌거 이면에 SpaceX의 독점력이 더욱 공고해진 한 해이기도 했다. Starlink 위성은 V2 mini의 무게 최적화와 전용 발사 미션 증가로 작년 한 해에만 3,169대가 배치되며 전년 대비 +70% 성장했다.

문제는 질적 지표인 우주 궤도 운송량(Mass-to-Orbit)에서의 격차다. 2025년 궤도에 배치된 총 페이로드 무게는 3,141톤으로, 미국이 2,650톤, 중국이 325톤을 기록했다. 미국의 2,650톤 중 약 40~50톤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량 SpaceX가 운송한 것으로 추산된다. 즉, SpaceX 단일 기업이 **글로벌 총 운송 중량의 약 85%를 점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림 5. 국가별 우주 궤도 운송량 비중의 85%를 점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SpaceX



자료: Jonathan's Space Repor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이는 단순 발사 횟수나 위성 수보다 훨씬 높은 점유율로, 사실상 지상에서 우주로 향하는 물류의 길목을 SpaceX가 완전히 장악했음을 시사한다. 산업적 관점에서 특정 기업의 과도한 독점은 가격 결정권 왜곡 등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어, 초기 우주산업 성장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다.

물론 2025년 말 Blue Origin의 시장 진입과 기술 경쟁으로 kg당 발사 비용의 하향 안정화는 지속될 전망이나, 고부가가치 우주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SpaceX 독주 체제의 완화와 경쟁 구도의 형성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다.

2026년 주요 우주 이벤트(SpaeX 상장, 미중 우주경쟁 등)

2026년 글로벌 우주산업은 단순 기술 경쟁 단계를 지나 비즈니스 모델의 경제성이 검증되는 원년이 될 전망이다. 핵심 관전 포인트는 1) SpaceX의 IPO 가능성과 이에 따른 섹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2) Starship 완전 재사용 기술 확보를 통한 비용 구조의 혁신, 3) D2C 등 위성 통신 서비스의 본격적인 수익화, 4) 미·중(G2) 패권 경쟁 심화에 따른 정부 지출의 구조적 확대이다. 특히 민간 우주정거장과 달 탐사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됨에 따라, 우주산업의 TAM은 위성 통신을 넘어 심우주 인프라 및 제조/서비스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될 것으로 판단한다.

2026년 하반기(3Q 가정) 예상되는 SpaceX의 상장은 글로벌 우주·방산 섹터 내 유동성을 확대시킬 최대 이벤트다. SpaceX의 상장은 비상장 영역에 머물러 있던 우주산업의 가치를 공개 시장에서 재평가받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우주산업 Peer 그룹의 멀티플 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IPO를 통해 조달된 막대한 자본은 스타링크 고도화 및 화성 프로젝트에 투입되며, 발사체 부품, 지상국, 위성 단말기 등 전방 밸류체인 기업들에게 확실한 낙수효과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1분기 예정된 Starship Flight 12 (Block 3) 및 부스터 캐치 시도는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닌 마진율 혁명의 시작이다. 1단 추진체 재사용을 넘어선 신속한 완전 재사용은 kg당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경쟁사 진입 장벽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경쟁사들의 기술개발을 더욱 자극할 것이다. 이는 우주 화물 운송 시장에서의 SpaceX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저궤도 인프라 구축의 손익분기점을 앞당기는 핵심 기제가 될 것이다. 올해에는 미국과 중국의 다수의 기업이 재사용 발사체를 상용화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4분기에 예정된 시에라 스페이스의 Dream Chaser 궤도 비행 또한 화물 회수 옵션의 다변화 측면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2026년은 하늘의 기지국 경쟁이 심화되며 저궤도 위성 통신 시장의 TAM이 획기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SpaceX의 스타링크뿐만 아니라 아마존 LEO(구 Kuiper), 중국의 궈왕(Guowang) 등 메가 콘스텔레이션 구축 속도가 빨라지며 위성 제조 및 안테나 밸류체인의 수주 잔고가 급증할 전망이다. 최근 SpaeaX는 7,500 대의 Gen2 위성 배치를 승인받았으며 추가로 D2C 주파수 전용 Gen3 위성 15,000대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다. 중국도 작년 12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약 20만대 규모의 대규모 군집 위성 구축을 위한 주파수 및 궤도 점유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히 D2C(Direct-to-Cell) 서비스의 등장은 핵심 투자 포인트다. 별도의 단말기 없이 일반 스마트폰과 위성이 직접 연결되는 D2C 기술의 상용화는 우주 통신 서비스를 틈새시장에서 대중적 B2C 시장으로 편입시키는 강력한 트리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분기 Vast Haven-1 발사는 LEO 경제의 인프라화를 의미한다. ISS 퇴역을 대비한 민간 우주정거장의 등장은 우주 공간이 R&D, 제조, 관광 등 상업적 활동의 플랫폼으로 전환됨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보잉의 Starliner-1 정식 운용은 유인 수송 시장의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며, 민간 우주정거장 사업의 안정성을 뒷받침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Artemis II, 1Q)과 중국(창어-7, 3Q)의 달 탐사 경쟁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닌 산업의 구조적 성장 동력이다. 2026년은 달 궤도 유인 비행(미국)과 달 남극 자원 탐

사(중국)가 맞붙으며, 우주 공간이 과학에서 안보 및 자원의 영역으로 확실히 편입되는 시기다. 이는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각국 정부의 우주 관련 예산 집행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 예산 증액 이슈도 이와 연관된 의사결정이라고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2026년은 우주산업이 꿈을 파는 단계에서 실적과 숫자를 증명하는 단계로 진입하는 해이다. 발사체 시장 내 SpaceX의 지배력은 여전히 견고하겠으나, 재사용 기술의 확산과 민간 인프라(정거장, 달 기지) 수요 증가는 후발 주자들에게도 기회 요인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기술적 해자를 보유하고 있거나, G2 정부 프로젝트 수주가 가능한 핵심 밸류체인 기업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2026년 우주산업 주요 이벤트 캘린더

분기/기간	주요 이벤트	세부 설명 및 기대 포인트
Q1 (1월~3월)	Starship Flight 12 (Block 3 데뷔)	– [SpaceX] Starship Block 3 기체의 첫 비행 목표 (1월 말~3월 초)
		– 궤도 도달 및 부스터 캐치(Mechazilla) 시도가 핵심으로, 완전 재사용 로켓 상용화의 중요한 분기점
	Artemis II	– [NASA] Apollo 이후 50여 년 만의 유인 달 궤도 비행
		– 우주인 4명이 약 10일간 달 주위를 비행(착륙 없음)
		– Artemis III(유인 달 착륙) 이전에 수행되는 핵심 리스크 제거 미션이자 2026년 핵심 이벤트
	Crew-12 (ISS 유인 교대)	– [NASA/SpaceX] Crew Dragon을 이용한 ISS 장기체류 교대 임무(4인 승무원)
		– ISS 운영 종료(2030년 전후)를 앞두고도 LEO 유인 수요가 상업·정부 혼합 구조로 유지된다는 시그널
	Gaganyaan-1	– [ISRO] 인도 최초 유인우주선 Gaganyaan의 무인 궤도 시험 비행 (3월 말 목표)
		– 재돌입·귀환 캡슐·비상 탈출 시스템 등을 검증하는 단계로, 인도의 독자 유인우주 능력 확보에 핵심
Q2 (4월~6월)	Vast Haven-1	– [Vast / SpaceX] Falcon 9으로 발사되는 세계 최초 민간 우주정거장 모듈
		– ISS 이후 LEO 인프라를 민간이 주도하는 상업 우주정거장 시대의 출발점.
	Vast-1 (Haven-1 유인 방문)	– Crew Dragon으로 4인 승무원이 Haven-1에 도킹해 약 30일간 체류
		– 민간 고객·국가·기업이 LEO를 서비스·연구·관광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모델을 실증
	Boeing Starliner-1	– [Boeing/NASA] ISS 왕복용 Starliner 캡슐의 첫 정식 운용(Commercial Crew) 비행 목표
		– Crew Dragon에 이은 두 번째 상업 유인 수송 수단으로, 가격·공급망·리던던시 측면에서 구조 변화 기대
Q3 (7월~9월)	NASA CLPS – Griffin / VIPER	– [NASA/Astrobotic] CLPS(Commercial Lunar Payload Service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Griffin 착륙선이 VIPER 로버를 달 남극에 투입 (7월 이후 목표)
		– 민간 착륙선을 통한 달 자원 매핑 및 상업 물류 체계 실증이라는 점에서 산업적 의미 큼
	Chang'e-7 (창어 7호)	– [CNSA] 달 남극 착륙 미션(늦여름~가을 목표). 오비터+랜더+로버+미니 호퍼 구성으로 영구 음영구역(PSR) 물(얼음)·휘발성 자원 탐사가 핵심
		– 향후 달 기지·연료 생산(ISRU) 및 중국 유인 달 착륙 시나리오 설계에 직접 연결되는 전략적 인프라 미션
	SpaceX 상장 (가정 시나리오)	– 글로벌 우주·방산·AI 인프라 섹터 내 최대급 IPO로, 민간 우주 인프라/발사 시장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기대
Q4 (10월~12월)	중국 유인/무인 프로젝트 (Shenzhou, Mengzhou)	– 톈궁 우주정거장 교대 임무 Shenzhou-23/24 등 유인 비행 지속
		– 차세대 우주선 Mengzhou-1 무인 테스트를 통해 2030년 이전 중국 유인 달 착륙을 겨냥한 심우주 귀환·고속 재돌입 기술 검증
Q4 (10월~12월)	Dream Chaser 첫 궤도 비행	– [Sierra Space] 재사용 미니 셔틀 Dream Chaser의 첫 궤도 비행 및 활주로 착륙 데모
		– ISS 화물 보급 및 장기적으로 유인 버전까지 염두에 둔 셔틀형 재사용 우주선 복귀의 상징성
연중 (2026년 전체)	Starship 추가 시험 비행 및 궤도 재급유	– Block 3 이후 버전 포함, 반복 발사·재돌입·착륙 시험 지속
		– 열보호 시스템, 탱크 구조, 고신뢰 재사용 시나리오 검증을 통해 항공기 수준 운용에 얼마나 근접하는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
		– Artemis III 달 착륙선용 Starship 및 향후 화성 대형 미션의 필수 기술로, 초대형 재사용 로켓 기반 대규모 물류의 경제성을 가늠하는 이벤트
	상업·정부 ISS/LEO 활동 확대	– Crew-12 이후 ISS 유인·화물 미션, Axiom 등 상업 모듈·정거장 활용이 확대
		– LEO가 연구+서비스+관광+제조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전환기
		– 저궤도 통신 위성 배치 가속화(스타링크, 아마존 LEO, 궈왕, 천범 등)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